특별인터뷰 | 포천시 기업지원과장 안 유 진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원 마련 위해 조례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제한 법률 개정 필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업무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유치 등의 업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기업지원과 안유진(사진) 과장은 포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법 등 상위법에 의해 제한규정이 많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점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기업을 하기 위해 토지취득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린다. 또 교통망도 엉망이다. 양주시의 경우, 전철이 개통되었지만 포천시는 43번 국도가 포화상태다. 도로문제도 기업인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신북면 아래쪽으로는 양문공단을 제외하고는 개별유치 공장이 전무한 실정이고 그나마 개발 가능지역인 군내면과 가산면 일대는 최근 850만평이 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일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포천시가 기업인들의 편의를 봐 주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47번 국도변은 포천시의 관광로드맵에 따라 경관 유지 차원에서 개발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적으로 포천시가 기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적립하기 위해 조례를 신설하여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2~3% 저렴하게 대출하여 기업의 숨통을 터주고 있다.

또한 매년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수출을 돕고 세계월드옥타 대회를 유치해 세계에 진출해 있는 한인무역인총회를 포천시에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업종간의 교류를 가능케 했다.

또 산업클러스터 사업으로 대진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산업체 기술고도화 시설을 유치하고 특허출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개척단을 모집해 수출유망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포천시는 공단에 진입하는 도로개설은 물론 가로등 설치 등의 환경조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에 있어서 토지주와의 갈등이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다.

포천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안 과장은 진입도로해결이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업운영자금 및 시설투자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업체의 경우,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 판매장을 이용하는데 이에 대해 안 과장은 인터넷 매장도 포천시가 적극 검토해서 개설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특히 포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개통과 43번 국도 확·포장과 광역교통망 확충과 민간항공 유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포천시 기업인들에게 안 과장은 포천시가 기업을 운영해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기업인들은 시대의 조류에 맞는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 기업지원과는 경제농정국의 주무과로 안유진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지역경제담당(이근형), 기업육성담당(박경식), 기업유치담당(승광익), 공업민원담당(이장일), 균형발전담당(조준기)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및 봉화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국제무역상담회 개최 및 국제통상촉진단 파견을 비롯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기업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도시가스공급사업, 에너지관리업무 등 기업 및 경제분야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유진 기업지원과장은 2007년도를 맞이하여 과 전 직원의 한 해 목표를 정하여 공표함으로서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자기계발은 물론 성취감을 고취해 나아감으로서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 우리지역 사업소 138 | 청풍홍삼삼계탕

모든 고객의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삼계탕

대표 한 명 숙

청풍홍삼삼계탕(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44호 대표 한명숙)은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 우리 건강을 고려해 기능성 삼계탕의 대중화를 선언했다.

건강을 잃기 쉬운 여름철에 사철탕과 더불어 만인의 사랑을 받아온 삼계탕은 꼭 여름철에만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없어진지 오래다.

인삼, 대추, 은행, 밤, 잣 등 우리네 건강에 좋은 약재를 사용함으로 수술 후 원기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보양식이기 때문이다.

이용한 각종 식품 중 삼계탕을 선택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개성천삼조합에서 다년간 연구 노력해온 결과에서 얻어진 값진 보양식으로 담백한 뒷맛을 자랑하며 삼계탕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홍삼삼계탕은 홍삼원액의 가격대가 높아 1만5천원을 받고 있어 고객들이 부담은 느끼겠지만 정직한 재료 사용으로 고객의 입맛에 맛도록 정성을 가미해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들깨삼계탕(1만원)은 비타민 E가 풍부해 전날 과음으로 인한 속 풀이용으로 최적이며 모든 삼계탕 메뉴에 따라나오는 숙성이 잘된 인삼주 한잔까지 곁들이면 숙취해소로는 그만이다. 여기에 양질의 국내산 한방재료만을 고집한 한방삼계탕(8천원)이 부담 없는 가격을 자랑하며 일반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 대표는 "이렇게 질 좋은 삼계탕을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연구를 거듭해온 개성천삼조합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찾는 고객들이 맛있게 드시고 조금이나마 건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풍홍삼삼계탕은 이 밖에도 큰닭 양념탕(2만5천원)과 도가니탕(9천원), 인삼튀김(1만원)등을 메뉴로 선보이고 있어 삼계탕을 기피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밑반찬 종류는 5가지이며 계절과 요일별로 금주의 식단계획을 미리 연구해 음식과 궁합이 맞고 고객들의 구미에 맞는 밑반찬을 식단에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건강까지 생각한 지역의 대표 삼계탕

양질의 재료사용으로 남녀노소의 건강 삼계탕

지난 7월에 개점한 청풍홍삼삼계탕은 먼저 깔끔한 실내 분위기가 돋보인다.

고객들을 배려한 인테리어가 무엇보다도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고객들은 건강에 좋은 삼계탕을 접할 수가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곳의 상호부터가 고객들의 눈길을 끌게 하고 있다. 바로 홍삼이란 상호다.

홍삼은 우리 몸에 좋은 매우 유익한 식품이며 부작용이 없는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홍삼 원액을 이용한 삼계탕을 선보이기까지는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청풍홍삼삼계탕은 개성천삼조합에서 홍삼을 부자용이 없는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홍삼 원액을 이용한 삼계탕을 선보이기까지는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향후 프렌차이즈 사업에도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풍홍삼계탕은 80여명 정도의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보유와 양대 명절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찌는 듯한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가뜩이나 입맛이 없어 무언가 먹거리가 생각나지 않을 때 청풍홍삼삼계탕에서 스타일리시한 삼계탕으로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문의)031 544-2345. Hp.016 539-7229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청풍홍삼삼계탕(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44호 대표 한명숙)은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 우리 건강을 고려해 기능성 삼계탕의 대중화를 선언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 5

성공투자를 위한 3대 원칙

지난 호에 이어 물가상승의 예로, 문화생활로 대중이 접하고 있는 영화 관람료를 예로 들어 보겠다. 1978년 죠스 1천200원, 1981년 콰일강의 다리 2천원, 1985년 인디아나존스 3천원, 1991년 양들의 침묵 4천원, 1994년 패왕별희 5천원, 미션임파서블 6천원, 2007년 밀양 7천원... 매월 100만원씩 25년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물가와 금리의 차이는 (정기적금 연 4%, 물가상승률 4%, 이자소득세 15.4%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10년 후 원금 1억2천만원 116.4%로 1억4천21만원, 물가상승률 123.1%로 1억4천774만원이다. 25년후엔 원금 3억원 177.3%로 4억2천732만원, 물가상승률 214.9%로 5억1천584만원이다.

즉 -8천852만원의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인 것이다. 왜 저축을 하는 것일까? 주택마련, 교육비, 자녀 결혼비용, 은퇴 준비 등...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자금마련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일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은행이자는 바라보기 어렵고, 금리 1~2%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과는 엄청나다. 이자율이 3%일 경우 1천만원을 예금하고 20년이 지나면 1천800만원이 된다. 이자율이 5%일 경우 2천650만원이 된다. 2%이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에 따라 2배 가까운 이자를 만든다.

다시 1천만원이 이자율 4%, 20년 후엔 2천191만원이 되고 7% 이자율이면 3천869만원이 된다. 이자율 3%에 불과 하지만 만기금의 차이는 1천7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테크는 1~2년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연일 주가가 치솟고 있더니 요즈음은 주가 폭락이라고 떠들썩하다. 돈 되는 건 주식뿐이라는 말만 듣고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개미투자자들은 원금마저 까먹는 건 아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8월10일 여의도 증권가에는 주가 급락으로 인해 연일 정신이 없다. 급락시장은 전 세계 증시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말들이다.

항시 급등락 시마다 개인투자자들이 망한다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이다. 기관투자자들이나 외인들은 주가의 등락에 예의 주시하면서 적당한 배팅을 한다. 보유한 주식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기관들이 매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펀드의 현금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금비중 확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10~20%를 넘지 않는다. 즉 대부분 80%는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현금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들은 풀배팅인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바닥을 쳐도 더 살 자금이 없으며 결국 다시 제자리 오기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펼 수도 없고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다. 희망이 깨지는 순간 투매를 한다.

그래서 항상 버티다 버티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투자는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에 대비 간접투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성공투자를 위한 3대원칙은 첫째, 분산투자를 하여야 한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하지 않던가! 두 번째로 장기 투자를 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최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다.

변액보험에 투자했다가 2년만에 큰 손실을 봤다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얼마 전 TV에서도 방영했던 내용을 시청했었는데, 그 내용은 99%이상 그 상품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권유한 자들의 잘못이 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기적인 투자이다. 달라코스트에버리징 효과로 타이밍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 수익 추구하는 것이다. 몇 년 전 미국의 자수성가한 부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 있었다. 그들의 부의 축적은 장기적인 주식투자였다고 한다.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복리'와 '보험'이다 라고 윈스턴 처칠도 극찬을 하였다. 이와 함께 보장도 쭈욱~!

이미정
금호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져
010-3023-0065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아래 기간이 지난 후 파는 것이 유리하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미등기자산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의 10%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의 1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익의 30%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 양도차익의 4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5년 또는 10년 이상이 되도록 하여 양도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5천만원을 남기고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유기간이 3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2년 10월인 경우 : 8,325,000원
- 보유기간이 3년 1월인 경우 : 6,975,000원(▽1,350,000원)

2) 보유기간이 5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4년 10월인 경우 : 6,975,000원
- 보유기간이 5년 1월인 경우 : 6,300,000원(▽675,000원)

3) 보유기간이 10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9년 10월인 경우 : 6,300,000원
- 보유기간이 10년 1월인 경우 : 4,950,000원(▽1,350,000원)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4과
8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과 다발 줄걸이 작업 중 지지용 합판 파손으로 붕괴

▶재해발생 개요

0000년 3월 27일(화) 10시경 대구광역시 소재 금속파이프 제조 작업장에서 완제품인 스테인리스 강관 다발 출하를 위한 줄걸이 작업중 피재자 후면에 6단으로 적재된 알루미늄도 강관 다발 하부의 사각형태의 지지용 합판이 파손되어 강관다발이 붕괴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동종 재해 예방대책

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함.

1)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2)취급방법 및 순서
3)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

나. 강관 다발 적재방법 개선

-파이프 묶음용 철재밴드가 클립에서 해지되는 하중, 철재밴드 묶음개소, 적재 높이 등 적재로 인한 하중에 의하여 사각형태 지지용 합판이 파손 또는 철재밴드가 해지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적재높이를 검토하여 작업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적재높이를 관리하여야 함.

-또한, 파이프 다발 적재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고, 붕괴위험이 없도록 다발사이에 튼튼한 지지대를 설치하여 붕괴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했다. 어떻게 하면 되나?

탈퇴신고 · 신규가입 모두 필요

우편신고도 가능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함이 없더라도 제반 권리의무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어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개인사업장은 휴폐업사업장 탈퇴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해야 한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 경영해오던 기업을 법인(주식회사)으로 바꾼다는 얘기다. 당연히 법인전환 사업장은 해당 법인이 사업 운영상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업의 조직형태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사업장 전환 시 개인사업장은 정리 후 폐업을 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그 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 기준일까지 결산기간으로 해 그 기간에 경영성과에 대한 결산과 현재의 재무상태를 확정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관련 서류도 정리해야 한다. 우선 개인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규정 서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폐업사실증명원 사본도 준비하면 더욱 좋다.

법인사업장을 신규로 가입 신고할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절차는 해당서류를 챙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제출 이후로는 업무처리 절차 등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원거리로 인해 방문이 힘들 경우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